

문제 1

1. “반대로 어린 고릴라들은 반응만 살피고 확인할 뿐 인식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시문 상으로는 ‘관찰’이 이루어지지 이 행동에 대한 ‘해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논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인지는 인간만 가능한 특수성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2. 이후에 이루어지는 (가)/(다) 대응은 완벽합니다. 인식의 차이로부터 매장풍습까지. 또한 문장력또한 아주 좋으시네요. 정말 깔끔합니다.
3. 하지만 “그러나 (가)의 새와 (나)의 고릴라는 같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인원인 고릴라는 관심을 갖는 등 한층 더 깊은 죽음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진화정도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번지적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1번,3번 지적에 대해 문장 서술이나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생각하시는 내용을 서술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도예요:)

문제 2

1. 1문단에서 표에 대한 해석은 좋으나, 표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결론’ 이 없습니다. 표 또한 하나의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결론을 도출 하셔야 합니다.
2. “실험1에서 죽음이라는 직접적 언어가 기피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배설물도 더러운 것으로 죽음을 회피하게 만든다.” 실험 1에대한 설명만 있고 2는 없습니다.
3. “험1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고 실험2에서는 같은 기숙사생 50명을 실험대상으로 한 것이 죽음을 더 연상시킨 것이다.” 3문단 또한 실험1은 타당하지만, 기숙사생이라는 것보다 배설물에 관련된 상황(화장실)/ 배설물과 관련되지 않은 상황(복도)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없습니다.
4. “이러한 두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이 실험은 실험설계에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배설물이라는 단어 자체로 죽음을 연상시키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한 표본이 50명으로 너무 적으며 성별, 학년이 동일한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 결과값이 한 집단만을 대변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에 대해 자신의 논지를 펼치는 데 있어 제시문 자체를 부정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논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논술은 ‘제시문’에 기반하여 서술하는 것이지 제시문 자체를 부정하면 모든 답안자체가 부정된 제시문에 기반한 답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는 잘못된 서술입니다.